

Future

The

For

Blueprint

A

Cities are growing faster than ever before and there's never been a more exciting time for radical new urban projects. This special report looks at the future of the metropolis.

The human species has now been majority-urban for over a decade, and by 2050 it's estimated that 70 percent of the world will be city slickers. These stark statistics mean that grow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urbanism, with governments and business leaders alike focusing on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lie ahead. With all this renewed interest in urbanism, the big question remains: who actually makes cities? What forces shape them? Who is tasked with their creation and maintenance? Which projects and entities stand out as best in class?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myriad and go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any one discipline or group of experts. What was once financed by governments and developers in a 'top-down' affair has only grown more complex. We live in a time when disciplinary silos are being challenged as old-fashioned. To shape a city, so many forces must now come together that it's impossible to point to a 'normal' trajectory. And yet, it has never been more vital to understand how cities can be made more livable and sustainable for all their current and future inhabitants.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are perhaps the first actors that people assume shape cities, but it's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are increasingly acknowledged as primary stakeholders capable of significant impact. While this is in some respects obvious, it is the complex nature of what is created that needs to be examined and analysed.

Great urban planning now needs to achieve positive results at a number of scales, enrolling all levels of society. This stretches far beyond individual cities or countries: global frameworks for long-term, multilateral action are being established. Urban design and planning – the disciplines charged with creating the spatial parameters of urban centres – can now be integrated into political and economic programmes in novel ways.

There's never been a more exciting time for a whole array of actors – from business leaders to designers and citizens – to leave their mark on the future of the city. We need to take what is best from the past without being beholden to it, and trawl the present for the most exciting and innovative solutions. The following pages of this report give some pointers for those looking to play a greater role in our urban futures.

도시의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거주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 보고서를 통해 미래형 도시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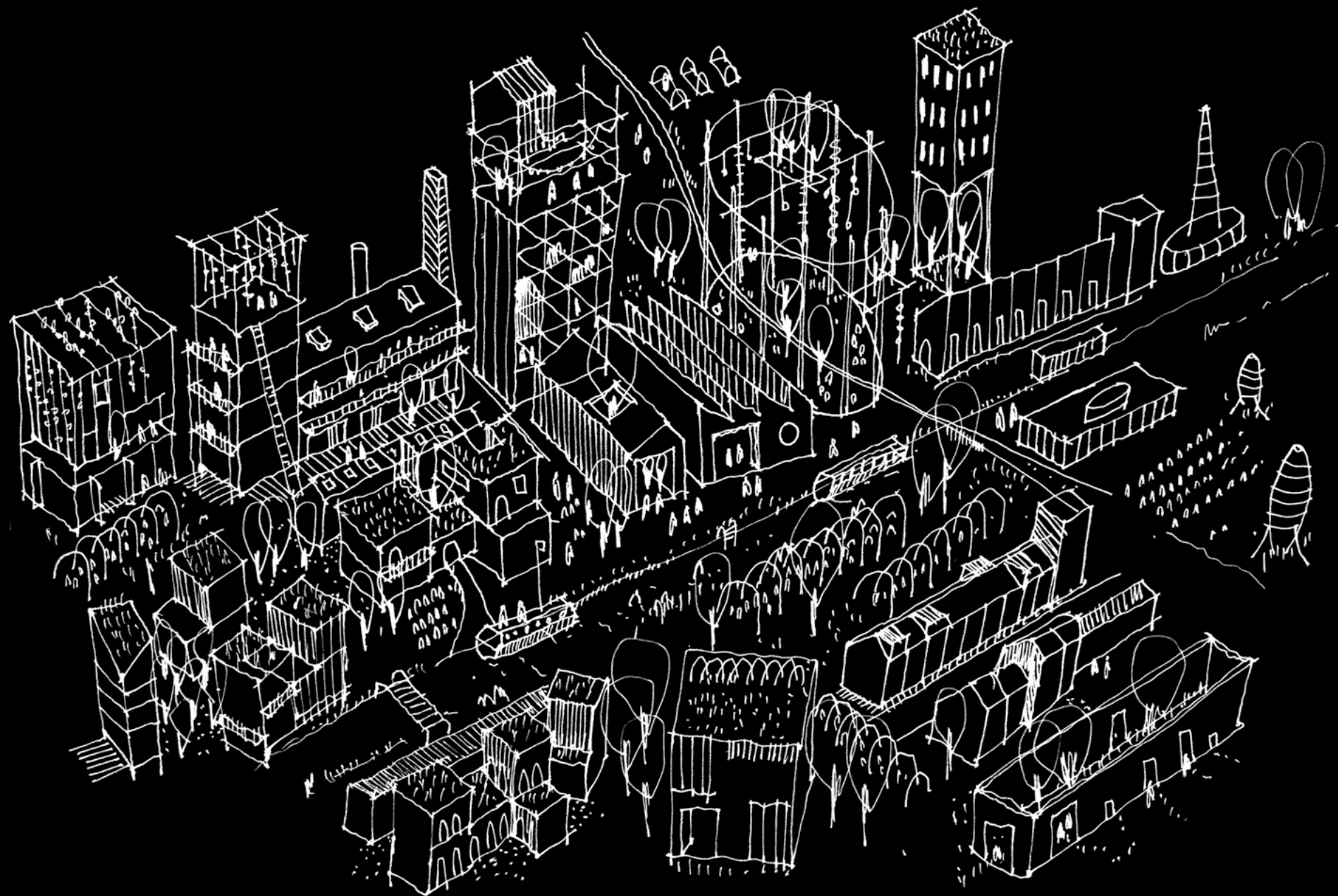
인류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와 같은 통계치는 도시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 및 비즈니스계의 리더들도 앞으로 도시화가 만들어낼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도시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문 하나가 머리를 맴돈다. 그렇다면 대체 도시는 누가 만든 것인가? 어떤 힘이 도시를 만드는가? 누가 도시를 만들고 정비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는가? 어떤 프로젝트와 단체가 업계 최고의 수준을 뽐내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궁무진하다. 어느 한 분야 또는 전문가 그룹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때는 '하향식'으로 정부와 개발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우리는 분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힘들이 모아져야 하며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거주자들을 위해 도시를 보다 살기 좋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도시를 만드는 주체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기관과 정부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의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의 특성은 어떤 면에선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시의 복잡한 성질은 조사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훌륭한 도시 계획도 좋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척도를 사용해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때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이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개별 도시나 국가의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활동이다. 장기적인 다자간의 행동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수립되고 있다. 도시 디자인과 계획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경제 사업과 통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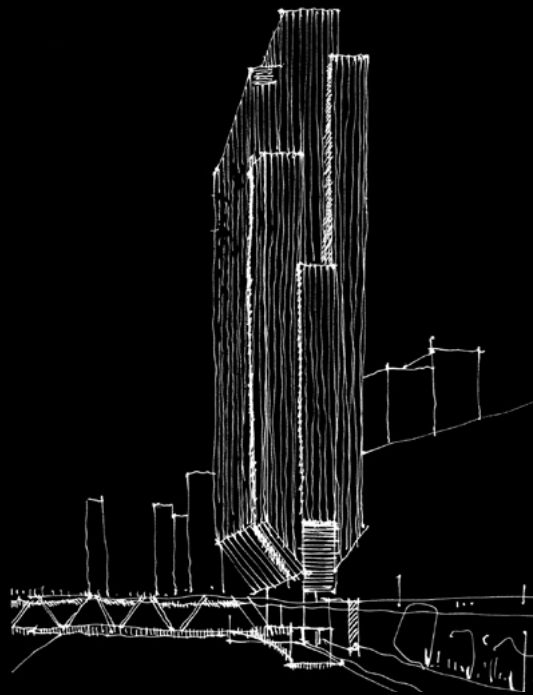
비즈니스 리더에서부터 디자이너,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다. 우리는 과거에 짐작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서 교훈을 끌어내야 하며, 현재 배워야 할 것을 찾아내어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출해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한다.



The Urban Awards

Here are ten projects from around the world that represent all that is best in urban planning today — from sustainability to design and legislation.

지속가능성에서부터 디자인, 법률에 이르기까지 도시 계획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10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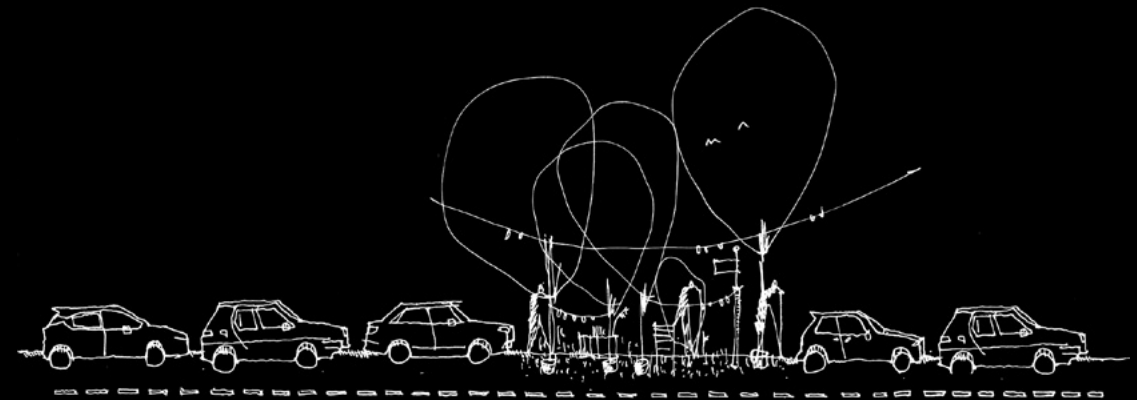
1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Chicago, USA

The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CTBUH) is an international body created in response to the vertical growth of cities around the world. With its foundation in Chicago – one of the USA's great skyscraper capitals – CTBUH brings together industry experts from many fields to exchange knowledge on a range of topics related to tall buildings and urban design. If we're going to make the transition to high-density living, organisations such as this are going to be essential laboratories for new thinking.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는 전 세계 도시에 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미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고층 빌딩 및 도시 디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업계 전문가들이 지식을 교환한다. 높은 인구밀도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선 CTBUH와 같이 새로운 사고를 위한 실험실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First held in San Francisco in 2005, this initiative turns parking lots into mini-urban oases for community interaction. The brainchild of John Bela, Matthew Passmore and Blaine Merker (operating as Rebar) the event has grown to become a global phenomenon. Identifying that the rent on parking spaces is minimal even though they're in prime urban locations, on Park(ing) Day each September a swathe of civic-minded individuals now work to transform these tarmaced spaces into parks, cafes and other spaces for social engagement. The impact has been formidable, leading to the creation of more permanent small 'pocket parks' in many municipalities.

2005년부터 청계천은 서울 시민과 관광객에게 빌딩숲 속 푸른 휴식 공간을 제공해왔다. 개장한 지 거의 13년이 지난 지금, 한 때 버려졌던 강과 독에는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재건을 위한 용기 있는 시도가 공공의 영역과 도시 전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3 Kampala City Authority
Kampala, Uganda

Dr Jennifer Musisi has been executive director of the Kampala City Authority since 2011, and her reform of the institution is held up as one of the most radical shifts in local government anywhere in the world. Under her leadership, a nearly 200-percent increase in municipal tax revenue has helped to fund public transport, street improvement and public space projects, and the KCA is now used as a benchmark for municipal institutions in Africa and bey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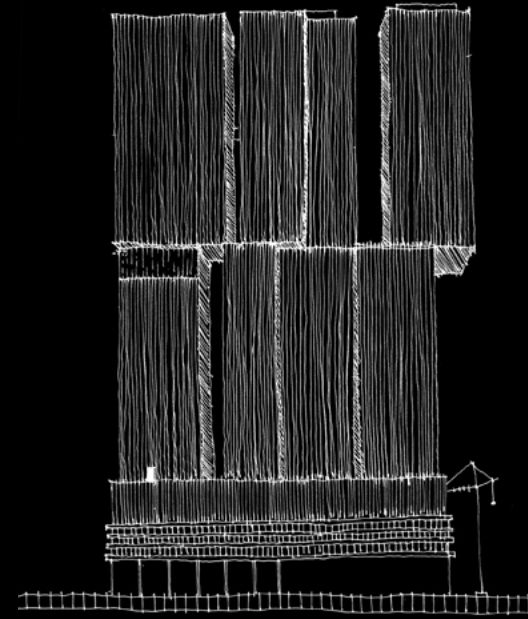
제니퍼 무시시(Jennifer Musisi) 박사는 2011년부터 캄팔라 시정부의 전무이사를 맡아 왔다. 무시시의 개혁은 지방 정부에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개혁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무시시의 지휘 아래 지방세 수익이 약 200%나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과 거리를 개선하고 공공 공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 및 그 밖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캄팔라 시정부의 개혁 활동을 목표 기준으로 삼고 있다.



5 Rem Koolhaas
Rotterdam, The Netherlands

One of the best known architects of his generation, Koolhaas is a consummate urbanist. Originally a journalist, his work on cities began with the book *Delirious New York*, and has since influenced many involved in making urban areas. His focus now also incorporates rural areas, making the point that while the world is majority urban, billions of people still live in the countryside and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hinterland is crucial for future prosperity of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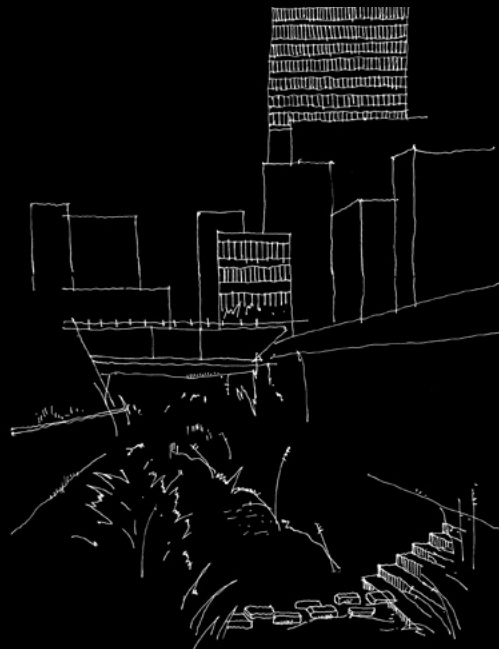
동시대 건축가 중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사람인 렘 쿨하스는 유능한 도시 계획 전문가이다. 원래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그는 첫 저서인 <정신착란증의 뉴욕(Delirious New York)>을 시작으로 도시와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며 다른 도시 공간 전문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현재 그는 농촌 지역을 통합하는 데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십억 명의 인구는 여전히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와 배후지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4 Cheonggyecheon River Linear Park
Seoul, South Korea

Since 2005, the Cheonggyecheon River Linear Park has provided Seoul residents and visitors with a green place for relaxation in the middle of the dense metropolis. Nearly 15-years after its opening, even birds and fish have returned to the once-buried river and its banks. The project is recognised internationally as exemplary of what urban revisions undertaken with courage can add to the public realm and the city as a w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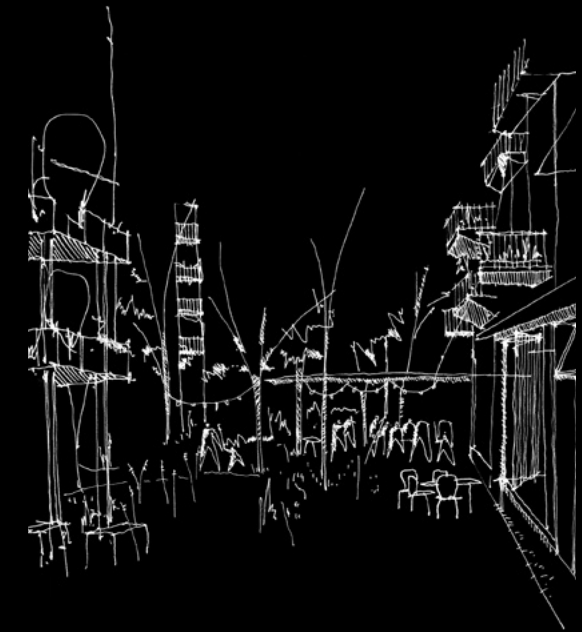
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이 직면 한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록을 임대하고, 그들의 여분의 방에서 자고, 아침 식사를 그들과 함께 먹는 것에 의해 우리 고객과 가깝게 되었다. HM 사람들이 기술이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이라는 개념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핵심 교장으로 등장 했습니까? 소속은 우리가 여행 할 때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잠잠한 욕망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호텔의



6 Make City
Berlin, Germany

The impact and actions of one person acting to support a community-based approach to city making can be formidable. Francesca Ferguson, a Berlin-based curator and journalist, began Make City in 2015 as an annual festival to showcase best-in-class projects from around the world. It has since become a highly anticipated event that highlights bottom-up yet pragmatic approaches to achieve significant urban change.

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이 직면 한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록을 임대하고, 그들의 여분의 방에서 자고, 아침 식사를 그들과 함께 먹는 것에 의해 우리 고객과 가깝게 되었다. HM 사람들이 기술이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이라는 개념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핵심 교장으로 등장 했습니까? 소속은 우리가 여행 할 때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잠잠한 욕망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호텔의



This list of 17 goals reads as a manifesto for the future livability of cities, ranging from education, to environment and prosperity. They're undoubtedly ambitious (the first three goals are no poverty, zero hunger and good health for all) but then again, so were the founding constitutions of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It's a bold move from the UN to create some form of unified mission for urban planners the world over.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거주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에는 교육에서부터 환경, 번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17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빈곤과 기아 근절, 전 인류의 건강한 삶 등을 아우르는 야심찬 목표이긴 하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의 헌법이 기본적으로 명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유엔이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을 위한 통일된 임무를 선언한 것은 대단한 움직임이라 할 만 하다.

Baugruppen are new building developments financed by their residents-to-be. German banks, such as UmweltBank, are willing to grant mortgages and building loans to these groups, who pool their funds to buy land and cover construction costs. Consultants, acting as Baugruppen community facilitators, are increasingly active in this space. Could this German tradition hold the solution to housing shortages arou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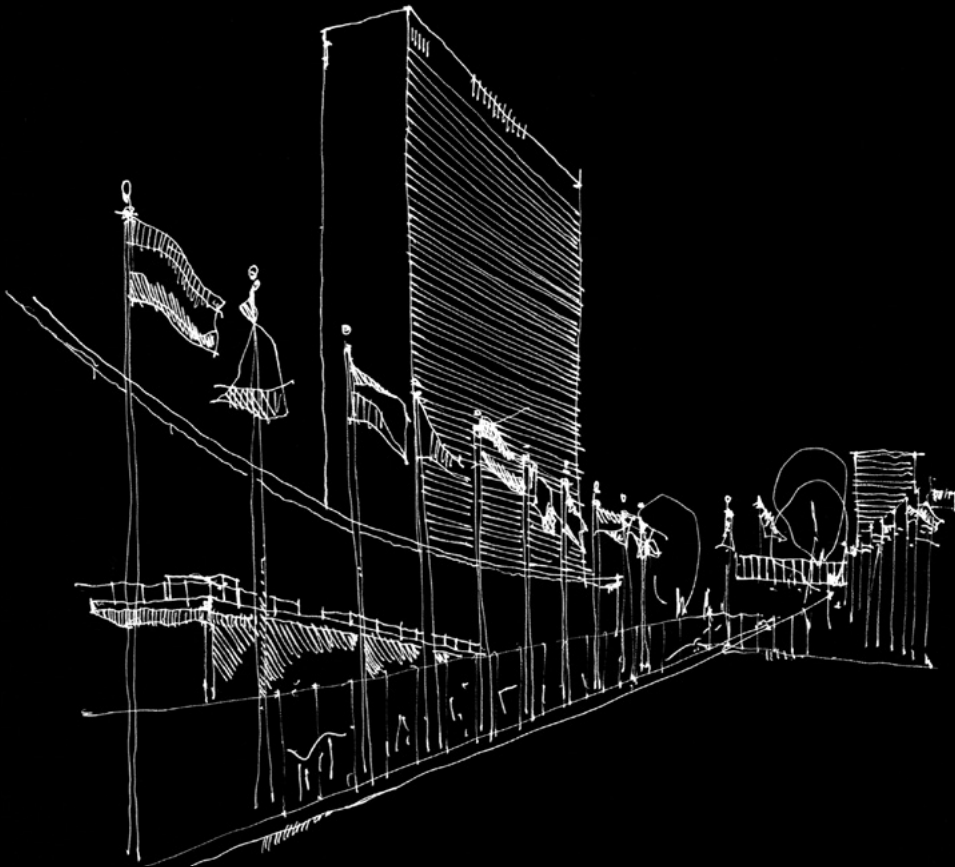
바우그루펜(Baugruppen)은 입주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만든 빌딩개발 협동조합이다. 독일환경은행(UmweltBank)과 같은 독일 은행들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 단체에 기꺼이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며, 이 돈은 조합원의 토지 구입과 건설비용으로 충당된다. 점점 더 많은 컨설턴트들이 지역사회 조력자로서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방식이 전 세계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BB serves customers in industry, utilities,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in over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ffordable and clean energy systems are key to creating better cities, and ABB's expertise in energy-related products, systems and services helps thousands of cities worldwide keep the lights on. The company is an important partner and support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from Formula E (the Formula 1 of electric vehicles) to more local, small-scale ventures.

ABB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산업, 유틸리티, 운송 및 인프라 분야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리적인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은 더 나은 도시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에너지 관련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ABB의 전문 지식은 전 세계 수천 개의 도시에 불을 밝히는 것을 돕고 있다. 이 회사는 전기차 포뮬러 E에서부터 소규모 벤처 기업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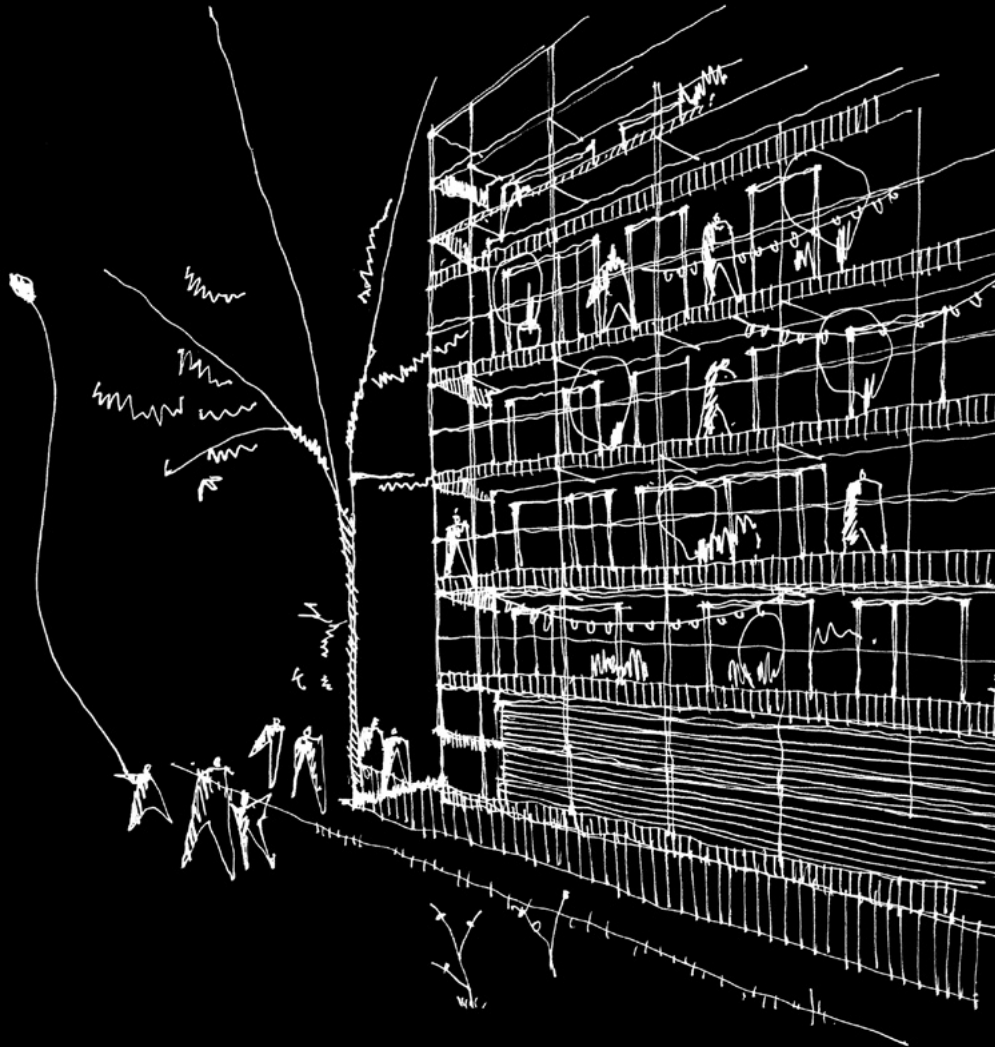
The term 'placemaking' is increasingly used to describe a range of processes that are used to create urban projects and spaces. This evolution of traditional urban design practice can largely be traced to the Danish architect and urban designer Jan Gehl and his work reorienting cities for people and the human-scale. Trained urbanists, marketeers and urban design firms are all active in this alternative to business-as-usual top-down city making.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스메이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도시와 공간 구성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덴마크인 건축가이자 도시 디자이너인 얀 겔은 전통적인 도시 디자인의 개념을 사람이 중심이 된 플레이스메이킹이란 개념으로 진화시켰다. 그의 작업은 도시를 차가 아닌 거주자를 위한, 사람 기준의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숙련된 도시 계획 전문가들과 기업가, 도시 디자인 회사들은 모두 공공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얀 겔의 대안을 지향하고 있다.



We sat down with two of the foremost minds in urbanism to ask what the future holds for our cities and communities.

우리는 도시와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 두 명의 저명한 도시화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Lucy Musgrave
Director of Publica

퍼블리카(Publica)의 디렉터
루시 무스그라브(Lucy Musgrave)

Publica is a London-based practice that does strategies, design and masterplanning for civic projects in this world city. Musgrave sits on the board of various cultural institutions and is part of London Mayor Sadiq Khan's Design Council.

런던에 위치한 퍼블리카는 세계 도시의 시민 프로젝트를 위해 전략, 디자인 및 마스터플랜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루시 무스그라브는 다양한 문화 관련 기관에서 이사회 중역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의 디자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Jessica Bridger
What's your role in making cities?
Lucy Musgrave

Civic urbanism involves understanding the patterns and complexity of use, what happens in terms of physical manifestation, but also land use, demographics, typologies, policy. We have our own particular method. Publica aims to advance policy thinking for how urban districts are changing and how this change is delivered. We are interested in setting the brief in civic urbanism, then examining how projects happen, looking at the space between buildings, at neighbourhoods, getting at the complexity of urbanism.

JB What is the role of 'placemaking' in creating urban areas?

LM It offer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ingredients needed to make vital urban neighbourhoods and impact how people understand where they

JB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LM 시빅 어버니즘(Civic urbanism: 시민 도시주의)은 시민의 도시 사용 패턴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과 관련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토지의 사용과 인구 통계, 유형학, 정책 등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퍼블리카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사고를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빅 어버니즘을 간단히 설정하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흥미롭게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과 인근 동네를 살펴보고 어버니즘의 복잡성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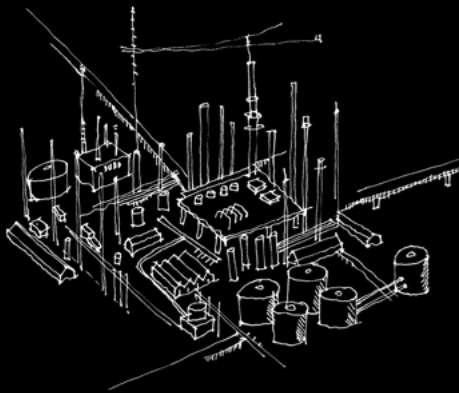
JB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플레이스메이킹'의 역할은 무엇인가?

LM 플레이스메이킹은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도시는 항상 유동적이다. 건물은 끊임없이 지어지거나 철거되며 교체된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여행하는 방식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다. '시빅

live. Cities are always in flux, buildings are continually built, demolished or replaced and how people want to live, work and visit, is becoming more interesting, especially in terms of layering. What I call 'civic urbanism' is about how we deal with diversity, respect the actual place, recognise that it has meaning and that there is significance in that meaning. Finally, it is important to state that it is not a right to develop in a city: it is a privilege.

JB What are some of the systems that you can imagine making urban environments in the future?

LM We need intensification and diversification in our cities, and in how we approach them. We should look at how different disciplines can use a collaborative process; from building the



physical dimension to civic urbanism it is fantastically dynamic. For us, it is about getting people to understand what we are trying to do. It might be an investor, a civic leader, an architect: we just look for those people who 'get it'. And then it's about honing and crafting different ways of working and different ways of working together. We have worked with wonderful politicians who really want to find principled, layered, evidence-based responses to intractable issues. I would love to see more politicians involved.

JB
LM

미래의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그러한 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해선 도시 강화(intensification)와 다양화(diversification)가 필요하다. 우리는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을 건설하는 것에서부터 시빅 어버니즘을 전파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협력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투자자이든, 시민 지도자든, 건축가이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일을 함께 진행할 여러 가지 방식을 만들고 다듬어야 한다. 우리는 다루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복합적이면서도 근거를 갖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멋진 정치인들과 함께 일해 왔다. 나는 더 많은 정치인들이 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어버니즘'은 우리가 다양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실질적인 장소를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한 문제이며,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어떤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는 특권이다.

Mark Lee
Harvard University

Architect and professor Mark Lee is the chair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and founding partner of Johnston Marklee Architects. He has long been an active part of city making as an academic, educator and practitioner.

Jessica Bridger

What does your role as an educator bring to your perspective on cities?

Mark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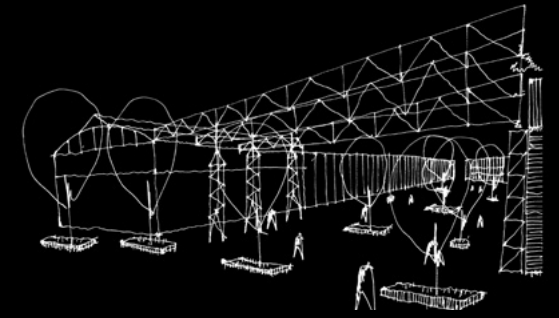
It means I think both in terms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I'm the chair of the Harvard GSD architecture department, but landscape architecture, planning and urban design are all closely related. A simplistic but useful definition is that architecture is buildings, landscape is the spaces between them and urbanism is both. Educationally, more focus needs to be placed on the 99 percent of what gets built, not just the 1 percent that are iconic buildings.

JB City-making needs a lot of people involved, and architecture has long had a focus on being interdisciplinary and becoming more open.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ML Discussion about being interdisciplinary now is different from what it was 20 years ago. Today is a reaction to what came before, breaking down boundaries opened-up dialogue, but also lots of dilettantism, by which I mean lots of people dabbling without real expertise. I'm interested in the redefinition of disciplines. Of course, disciplines need to have boundaries so these connection should be more like a bridge between areas of expertise.

JB What would you like to see evolve as we continue to think about how we make cities?

ML More regular people – the 'daily users' – are participating in making cities now. I want to see more artists participating – people who live in and out of society in a way that is not as determined or dictated. I don't mean 'art' in terms of actual artworks necessarily, but more as an oblique view: cities need artistic thinking.



하버드 대학교
마크 리 (Mark Lee)

건축가이자 교수인 마크 리는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의 건축학 과장이며 존스턴 마크리 아키텍츠(Johnston Marklee Architects)의 공동 설립자이다. 그는 학자, 교육자 및 실무자로서 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Jessica Bridger

교수라는 직업이 도시에 관한 당신의 관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Mark Lee

건축학과 어버니즘(urbanism)의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의 건축학 과장이지만 조경설계, 기획, 도시 디자인은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간단하고 적절한 정의를 내려 보자면 건축은 건물이고, 조경은 건물 사이의 공간이다. 그리고 어버니즘은 둘 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1%의 상징적인 건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99%의 앞으로 세워질 건물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JB 도시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관련자들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건축은 여러 분야가 참여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더욱 개방적이 된 것도 사실이다. 현재 건축계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

ML 현재 학제간 활동에 대한 논의는 20년 전 진행됐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오늘날 사용되는 학제간이라는 용어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반작용인 면이 크다. 경계를 허물고, 대화의 포문을 여는 식이다. 그러나 어설픈 지식으로 덤비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실제적인 전문 지식도 없이 그저 가법게발을 담그는 식이다. 나는 학제간이라는 용어를 다시 정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

JB 도시를 만드는 방법에 어떠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가?

ML 이제 보다 평범한 사람들, 즉 '매일 같이 도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도시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의되거나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살며 사회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도시 만들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예술이란 꼭 실질적인 예술 작품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보다 비유적인 관점에서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도시에는 예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